

금년 겨울 주목해야 할 돼지의 주요 질병과 예방대책

예 재 길 부장
(바이엘 코리아 학술부)

1. 서 론

최근 양돈산업에서 돼지 질병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돼지 질병에 의한 경제적 피해도 늘어 나고 있다. 더구나 돈가(豚價)는 하향국면에 접어들어 생산비 수준을 넘나들고 있어 양돈산업이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때 돼지 질병의 효과적인 방제대책으로 돼지 질병에 의한 피해를 줄여 나가고 생산성의 향상과 합리적 경영으로 양돈산업을 안정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본 고에서는 금년 겨울철에 특히 많은 발생이 예상되고 주목해야 할 돼지의 주요 질병과 예방대책에 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2. 돼지 전염성 위장염

돼지 전염성 위장염(TGE)은 기온이 낮은 늦가을부터 봄사이에 주로 발생하며 1주령 미만의 포유자돈은 발병하면 폐사율이 매우 높은 급성 전염병이다. 돼지 전염성 위장염은 1992년도에 크게 유행하여 양돈장에 많은 피해를 준 바 있으

므로 시기적으로 1995년도에도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1) 주요 증상

포유자돈은 구토와 회백색의 심한 설사를 하고 갈증과 탈수 증상을 보이면서 폐사하는 경우도 있다. 2주령 이상의 자돈의 경우 심한 설사증상을 보이며 적절한 치료를 하면 회복된다. 분만 모돈에 발병하면 발열, 설사, 식욕 부진으로 사료 섭취량이 줄면서 젖의 분비가 적어 포유자돈은 저혈당증으로 폐사하게 되므로 이럴 때에 포유자돈에 복강주사 요법이 필요하다.

(2) 예방대책

임신모돈에 분만전 5~6주와 2~3주경에 돼지 전염성 위장염 백신을 철저히 접종하여야 한다. 외부인이나 차량 출입시 철저한 소독으로 원인 바이러스의 침입을 막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필자의 경험으로도 본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매우 강하여 차단 방역이 쉽지는 않다.

최근 여러가지 유사한 설사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을 한 후에 인공감염 방법

을 시도하여야 한다. 바이러스성 설사병 발생시 인공감염 방법 보다 철저한 예방접종, 치료, 소독, 사양관리 개선 등으로 방역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돼지 오제스키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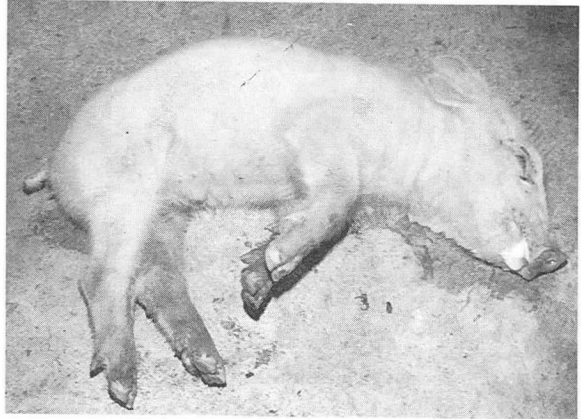
이 질병은 1987년에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발병이 확인되어 실질적인 방역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왔다.

그동안 제한된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여 왔으며 종돈장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양돈장에서는 발생이 없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종돈장에서 이 질병이 발생하여 방역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즉 돼지 오제스키병 백신의 사용이 허가되었으며 돼지의 이동과 종돈의 거래시 더욱 더 신중을 기해야 할 때가 되었다.

이 질병의 증상은 일령별로 다양하지만 고열, 구토, 설사, 선회, 마비, 과도한 침흘림, 번식돈에서의 유산, 사산, 흑자분만, 산자수의 감소 등이 나타난다. 또한 호흡기 질병이 많이 발생한다.

본 질병의 예방대책으로는 양돈장의 상황에 따른 오제스키병 백신 접종 요령(월간 양돈 1995, 11월호, p68~73 참조)에 따라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 소독을 통한 감염의 차단이 매우 중요하다. 오제스키병을 소독으로 차단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철저히 소독하면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 농장 입구, 돈사 주위, 돈사 출입구, 통로, 돈방내 등에 체계적으로 소독해야 한다.

돼지에 면역증강제를 투여하면 돼지 오제스키병의 발생을 줄일 수 있고 다른 질병도 예방할 수 있다는 실험 결과도 있으므로 활용해 볼 수 있다. 본 질병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해야 하므로 발생이 의심되면 즉시 관할 가축위생시험소나 양돈전문수의사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4. 돼지 유행성 설사병

돼지 유행성 설사병(PED)은 연중 발생하나 추운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돼지 전염성 위장염에 비하여 전파속도가 느리고 병 원성도 약하여 폭발적 발병은 없으나 일단 한번 발생하면 포유자돈, 이유자돈, 육성돈, 비육돈, 모돈에 광범위한 설사병 발생과 생산성 저하를 초래한다.

주요증상은 수양성 설사와 탈수위축이 특징으로 돼지 전염성 위장염과 임상적으로 구분은 어렵다.

본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약이 수의과학연구소에서 개발되었으며 현재 우리나라 백신제조회사에서 생산되어 판매되고 있다. 본 질병 발생시에 인공감염을 시도해 왔으나 정확한 진단 없이 임상적인 진단만으로 인공감염 시키면 다른 질병 즉 돼지 오제스키병이나 돼지 콜레라를 전파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5. 로타바이러스성 설사증

분만 직후 부터 3주령까지의 포유자돈에서 설

사증을 유발하는 질병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산발적으로 발생되어 왔다. 공식 집계로는 1992년, 1993년과 1994년에 각각 5건, 7건 및 7건씩 확인되었다. 대부분 대장균증과 복합적으로 병원성을 발휘하며 대체로 병원성은 약한 편이다. 그러나 농장에 따라서는 겨울철에 많은 발생이 우려되므로 이 질병에 대하여서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본 질병의 예방대책으로는 로타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하여야 한다. 본 백신은 돼지 전염성 위장염과 혼합백신이 개발되었으므로 본 질병의 발생이 의심되거나 바이러스를 분리한 양돈장에서는 돼지 전염성 위장염 및 로타바이러스 복합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흉막폐렴

돼지의 흉막폐렴은 액티노바실러스 플루로뉴모니아(*Actinobacillus pleuropneumoniae*: 전에는 *Haemophilus pleuropneumoniae*로 불렀으나 현재에는 같이 사용하고 있음)라는 세균이 원인체로서 호흡기 질병 중 가장 전염성이 강하고 경제적 피해가 큰 질병이다. 이 질병의 발생요인으로는 장기간 수송, 농장내에서의 무리한 이동, 과밀한 사육, 환기불량, 사양환경의 급변, 사양관리 부실 등이다. 최근에는 오세스키병이나 돼지 콜레라에 감염된 돈군에서 흉막폐렴의 발생이 많아 경제적 손실이 크다. 또한 여러가지 발병요인이 겹칠 경우 폭발적 발병을 일으킨다.

본 질병의 진단은 임상증상, 부검소견, 원인세균의 분리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진단할 수 있지만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필자는 돼지 흉막폐렴의 진단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진단방법을 개발 중에 있다.

필자가 개발 중인 진단방법은 양돈장에서도 간단한 기구만 준비하면 진단이 가능하도록 개

발할 예정이다. 필자가 조사한 원인세균의 혈청형은 혈청형 5와 2가 대부분이었으며 혈청형 3, 7, 9, 10 등도 드물게 분리되고 있다. 혈청형별 발병상황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의 흉막폐렴 백신의 혈청형은 혈청형 2와 5로써 백신을 제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질병의 예방대책으로는 흉막폐렴 백신의 접종, 발병요인의 제거, 감수성 우수한 항균제의 예방적 투여, 발병시 조기에 치료 등을 수행하고 철저한 소독으로 발병을 억제시켜야 한다.

7. 예방대책

(1) 정확한 진단

자기 농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질병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정확한 진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 및 예방 처지를 하면 경제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정확한 진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공감염을 시도하여 면역시키려는 방법은 최근 질병 발생 상황으로 볼 때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효과적인 대책수립을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이다. 이를 위해서 각 지역 가축위생시험소, 각 동물병원, 수의 과학연구소 등에 가검물을 의뢰해야 하며 수시로 양돈전문수의사에게 상담해야 할 것이다.

(2) 철저한 예방접종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염병 중 인공 양돈장에서 발병하고 있는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 예방접종 프로그램은 사양관리상태, 항체보유상태, 질병발생상황, 사육두수 등 여러가지 상황을 감안하여 양돈 전문수의사에게 상담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3) 적절한 치료

돼지 질병 치료 및 예방 약품도 그동안 많이 발전하여 왔다. 양돈장에서도 확실한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약품 사용 지침서에 의한 정확한 투약과 처치로써 동물약품을 사용해야 한다. 항균제의 경우 원인 세균을 분리하여 항균제 감수성 검사를 실험실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약제를 선택하여 투약해야 할 것이다.

(4) 소독의 생활화

확실한 소독력을 가진 소독약을 용도별로 선택하여 돈사 내외, 소독조, 돈사통로, 농장 출입구, 빈 돈방 등에 철저히 소독해야 한다. 소독의 횟수는 농장에 따라 다르지만 주 2회 이상 해야

하며 질병발생시 필요에 따라 매일할 필요가 있다.

(5) 사양 환경의 개선

돼지의 개량과 유전형질의 개선이 잘된 돼지들은 사육환경이 개선되어야 돼지의 유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 또 노동력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시설의 현대화가 필요하다. 분만돈사의 개조, 비육돈사의 자동화, 육성돈사의 케이지식 개조, 임신돈사의 자동화 급이장치, 각 돈사의 환기장치, 사료의 자동화 급이 장치, 돈분 처리 장치 등 단계적으로 시설을 자동화 해나가야 한다. 그러나 양돈자의 투자는 작업의 편의성, 노동력 해결, 생산성 향상, 자금사정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동·물·약·품·도·매·전·문

주·내외
약·동물·인체
와·진·구·비

정직과 신용으로 달려온 외길 40년
21세기를 고객과 함께 열어갑니다.

유통의 KNOW HOW를 가진 (주)협성가축약품이 귀사의 걱정재고를 유지시켜 주며 필요한 약품과 정보를 가장 빠른 시간에 최소의 비용으로 공급하여 귀하의 사업을 성공으로 인도합니다.



— 동물약품도매전문 —
(주)협성가축약품

-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287-31
- 본사 : 967-8779/964-4870
- 청량리영업소 : 965-9778
- FAX : 960-1894